



◇맑고향기롭게 모임은 지난 15일 계룡산 동학사 주변에서 제1회 사찰환경 생태기행을 기졌다.

# “풀 한포기 곤충 한마리 인간과 더불어 살아야죠”

### 본사후원 맑고향기롭게 ‘동학사 생태기행’ 동행기

“아빠! 사찰에는 왜 커다란 나무가 많아요?”  
 “그것은 불교에서 사람과 나무를 둘로 보지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사찰환경보존의 중요성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아들 재환(13세) 딸 소희(10세)를 데리고 참가한 정병관씨(서울 선화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에 분주하다.

관한 강연은 1억7천여만원을 들여 최근 완공한 하루 72.5톤을 1급수로 처리하는 오 폐수시설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며 진행했다. 스님은 지난 60~70년대에는 계곡이 깊고 아름다웠으며 수량도 많고 산사주위의 나무들도 건강했으나 80년대 들어 등산객이 늘면서 등산로 주위 나무들의 고사와 계곡물이 2급수화되는 등 자연환경이 날로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금강의 원류인 계곡을 살리기 위해 관광객의 계곡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승주(충암초등학교 4년)는 “집에서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참가하니 선생님의 말씀이 잘 이해됐다”며 “풀 한포기 곤충 한마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소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흥미로워했다.

동학사=김원우 기자

## 계곡물마저 오염 심각 사찰 오페수 시설등 견학 가족단위 50여명 참가

화이러시인지 현상환경교육을 위한 자연 동반 가족단위 참가가 많다.  
 15일 오전 11시경 계룡산 동북쪽에 위치한 동학사에 도착하여 참배하고 신라 성덕왕 23년 창건하여 유교·공존하는 사찰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역할을 지각스님인 법정스님(동학승가대학 3년)에게 설명을 들은 생태기행팀은 소중한 사찰환경을 우리손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학사 주지 일연스님의 동학사 주위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상태에

에 실시된 동학사 주위 계룡산 자연환경 답사 및 현장 체험에서는 화성암류지질과 태극형상의 지형에 소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감자지풀이 많은 이곳 식물생태를 조사했다. 또 원래 505종에 이르는 곤충을 불과 몇가지 밖에 볼수 없어 농약 사용과 수질악화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나무처럼 참람수가 많아 습도가 유지되고 계곡물이 많아진다는 것을 배웠다. 또 등산로 주위가 특히 훼손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 “26일 LA 불교TV 시험방송”

### 한국불교문화 美 전파...매일 30분씩

불교TV LA지사가 오는 26일 오후 3시 미국 LA지역 케이블 채널38을 통해 첫 시험방송 시작, 전편의 해를 맞아 한국불교의 국제포교에 새장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루 30분씩의 방송을 하게되는 불교TV LA지사는 ‘한국의 불교문화’란 제목하에 이번 시험방송기간동안 불교TV의 프로그램 가운데 현지인들의 반응이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 방영하게 된다.  
 프로그램공급은 LA관음사(주지 도안스님)의 비영리법인인 한미불교봉사회가 불교TV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불교TV 경영관리국 이호국장은 “6개월~1년간의 시험방송을 통해 우선은 교포사회에 호응을 얻고 고정채널을 통한 정식 개

국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불교TV의 기존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판매 등을 통해 개국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LA 지역에는 KBS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인방송 KATV(ch29)이 하루 12시간 방송되고 있고 또 미주한국기독교TV가 소수민족지역방송채널인 ch39(미국내 소수민족 지역방송 채널)를 통해 작년말부터 하루 1시간씩 한국기독교계열TV로부터 프로그램을 직접 공급받아 방송을 하고 있다.  
 불교TV 이번 LA지사 시험방송을 토대로 착실한 준비작업을 펼쳐, LA뿐 아니라 미국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교포토를 열어낼 계획이다.

## 몽골 불교 “흔들리고 있다”

### 기독교 경제원조등 선교물결 거세

기독교의 집요한 선교활동이 몽골불교를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의 콜롬비아대 알렉산더 버진 교수(Alexander Berzin, 52)가 최근 뉴스위크지를 통해 밝혔다.  
 A.버진교수는 뉴스위크지와외 인터뷰에서 “몽골이 서구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파의 기독교 또한 대거 유입됐다”고 말하고 “기독교 선교활동이 전통문화와 신앙을 되찾으려는 몽골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몽골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퍼져간 자본주의는 대부분 서구의 원조가 힘입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몽골이 이러한 경제성장에는 “영어교사로 가장한 선교사들이 기독교문화를 전파시키고 나중에 돈·컴퓨터·교

실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는 버진교수의 말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뿌리내리고 전통신앙을 위축시킨 부작용이 따랐다.  
 수련과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7백여년동안 불교사원 대부분이 파괴된 몽골은 지난 5년간 1백55여명의 불교사원을 다시 개원해 전통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달라이 라마(티벳) 역시 지난해 티벳을 보내는 등 몽골 불교 재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몽골불교는 불교의식 교육만이 가능한 소수의 노승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단편된 몽골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기독교 열풍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고 버진교수는 진단했다.

## 네팔 대성석가사 대법당 기공

### 내달 25일...요사채 등 1차공사 마무리

네팔 룸비니동산 개발구역내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사찰 대성석가사(주지 법신)를 건립해 화제를 모았던 대각회(대표 도문)가 1단계 공사인 요사채 건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25일 대법당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법당은 연건평 2천여평에 3층 규모로 건립되며, 4억5천여만원이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용성스님의 유해를 받들어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 처음 한국사찰 건립을 계획했던 도문스님은 “대성석가사 2단계 공사 시작은 1천6백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대성석가사를 짓는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수백만명의 세계불교도들에게 한국불교의 우수한 건축미술과 문화는 물론 국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석가사는 대법당건립에 이

어 오는 2천년까지 설법전, 구각, 국제 회의장, 종각 등을 갖춘 세계 최대규모의 사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 강원, 울산, 선원 등 승려전문교육기관 등도 갖출 계획이다.  
 룸비니 국제사원조성계획은 지난 58년 마한을 前 네팔국왕이 처음 제안한 뒤 67년 우탄트전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개돼, 현재 2백40만평 42개 구역에 22개국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종단소식

### 27일 관음중 중앙총회

관음중(총무원장 홍파)은 오는 27일 대전유성호텔에서 제34회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한다.  
 이번총회에서는 96년 결산보고와 97년 예산안 사업계획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총회에 이어 관음중은 ‘현대와 보살교’를 주제로 동대 불교대학회 목석배원장 초청강연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천중사 어린이집 운영

태고종 정릉 천중사(주지 운산)는 오는 24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정릉2동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천중사는 어린이 불교교양의 소중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도문스님

어 오는 2천년까지 설법전, 구각, 국제 회의장, 종각 등을 갖춘 세계 최대규모의 사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 강원, 울산, 선원 등 승려전문교육기관 등도 갖출 계획이다.  
 룸비니 국제사원조성계획은 지난 58년 마한을 前 네팔국왕이 처음 제안한 뒤 67년 우탄트전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개돼, 현재 2백40만평 42개 구역에 22개국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불교교양대 신입생 모집 “불법으로 새 봄 맞자”

불자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시키고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불교교양대학이 9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표 참조)  
 80년부터 불이 일기 시작해 현재 전국의 각 사찰을 주축으로 개설되고 있는 불교교양대학은

불교기초교리, 경전, 불교미술 등 전문강좌를 개설한다. 특히 불교교양대학에서는 교리강좌뿐만 아니라 신앙심고취를 위해 성지순례, 생활문화강좌 등을 개설, 불자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학교명	모집 학과	원서마감	연락처
대원불교대	불교학과(출강·통신·연구)	2월 28일	(02)776-7156
동방불교대	불교, 법학, 불교미술, 한의예과	2월 21일	(02)763-0229
동산불교대	정규, 통신반	1월 31일	(02)732-1206
금강불교대	전대, 불교학과	2월 10일	(02)464-3306
삼화불교대	불교, 위교, 불교미술, 불교, 신명승과	1월 29일	(02)511-2026
조계사불교대	불교학과(주간·야간·통신)	2월 28일	(02)720-6742
한국불교대	법사과, 오종대법사과	2월 28일	(02)720-1836
신보불교대	교리, 경전반, 연구과정	2월 28일	(02)352-6406
인리불교대	불교과 법사과	2월 28일	(0653)842-6652
동국불교대	전교사, 법사과정	1월 29일	(051)465-6242
영남불교대	기초반	1월 30일	(051)474-8227
금강불교대	경전, 교리반	2월 28일	(051)866-7278
해동불교대	법사, 불교의식법사과	2월 28일	(02)741-0495
전북불교대	불교학과, 보현학원	2월 28일	(0652)226-7878
경원불교대	불교학과(주간·야간·통신)	2월 28일	(0361)51-5040



김중근 (취재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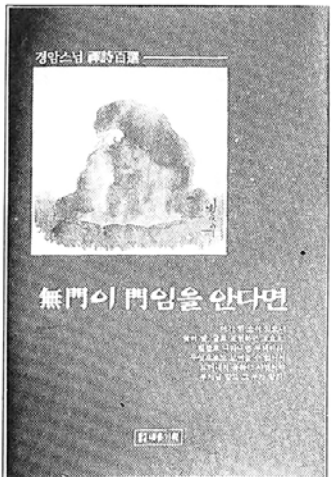
## 성도절 행사 유감

열지도 않았다는 후문이다. 어떤 불사보다 중요한 성도절의 의미가 수포로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조계종이 ‘개달음의 사회’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성도절 법회는 오히려 축소돼 개달음의 의미를 무색케 한다. 부처님 오신날은 대형불행사

들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고 불자들도 인산인해를 이루 부처님 오심을 찬탄한다. 하지만 성도절은 매년 성도절도 마찬가지다. 철야정진, 만승불사가 병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간소하게 부처님 되심을 찬탄하는 불행회가 치러졌고 일부 사찰에서는 성도절 법회마저

#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 경암 김준현스님 禪詩百選  
 時調詩로 엮은 개달음의 詩!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깨칠 것인가를 잔잔한 물결처럼 나직히 알려주는 스님의 목소리...



경암스님의 시는 간단하면서도 한구절 한구절이 깊이 음미하면 불교인식의 경계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짧은 인생을 길게사는 법을 관념적으로나마 알게된다.  
 —장이두스님 발문 중에서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8만 4천 법문이  
 꽃 한 송이에 감힘을 보고  
 눈 푸른 남자(衲子)는 꿈 깨어  
 회열로 이말 찾는다.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네 이마도 안 남으리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TEL: 738-6270, 735-7202  
 FAX: 733-1016  
 (정가 10,000원)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100분의 스님을 모집합니다”**

① 전국 100군데 시·군단위로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한 분씩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② 신비의 불탑다라니는 현재 자사암법로 스님들께서 스님신도들에게만 보급하고 있으나 100분의 스님들께서는 지역내의 전불자들에게 불탑다라니의 영험과 공덕을 알리고 큰 부담없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불사에도 도움이 되고, 신도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전화주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내용을 검토하신후 여건이 합당하시다는 판단이 되시면 연락주시는 순서대로 일자를 정하여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한 지역에 한 분 스님께만 정제적인 배려를 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 자제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이 기(氣)는 신신같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기(氣)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려가는 경향이 됩니다.  
 ③ 그리고 금강경 신비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공되는 기(氣)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어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건전한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 언제 이루어졌는지?  
 ● 조상령의 영기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취되었는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 현재 살고 있는 병환은 낫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를 낳겠는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비다라니에 의해 기(氣)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진 것은 기(氣)가 나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 어려운 것은 기(氣)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氣)가 나오면 성공률(80~90%)은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氣)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기(氣)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星)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송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과 영계에 인연과 공덕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있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키면, 이런 영력이 하나 들춰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최고사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해 기도하면 부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다.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기(氣)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 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재량과 재산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하고 소멸시켜 주는 방법으로 신도들에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스나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보지않는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의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알고 되며 스님을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 불교바라미 진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 성지관음회 (회장 예원)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TEL: 738-6270, 735-7202  
 FAX: 733-1016  
 (정가 10,000원)